

대행 스님

이 한 점의 마음 중심에 부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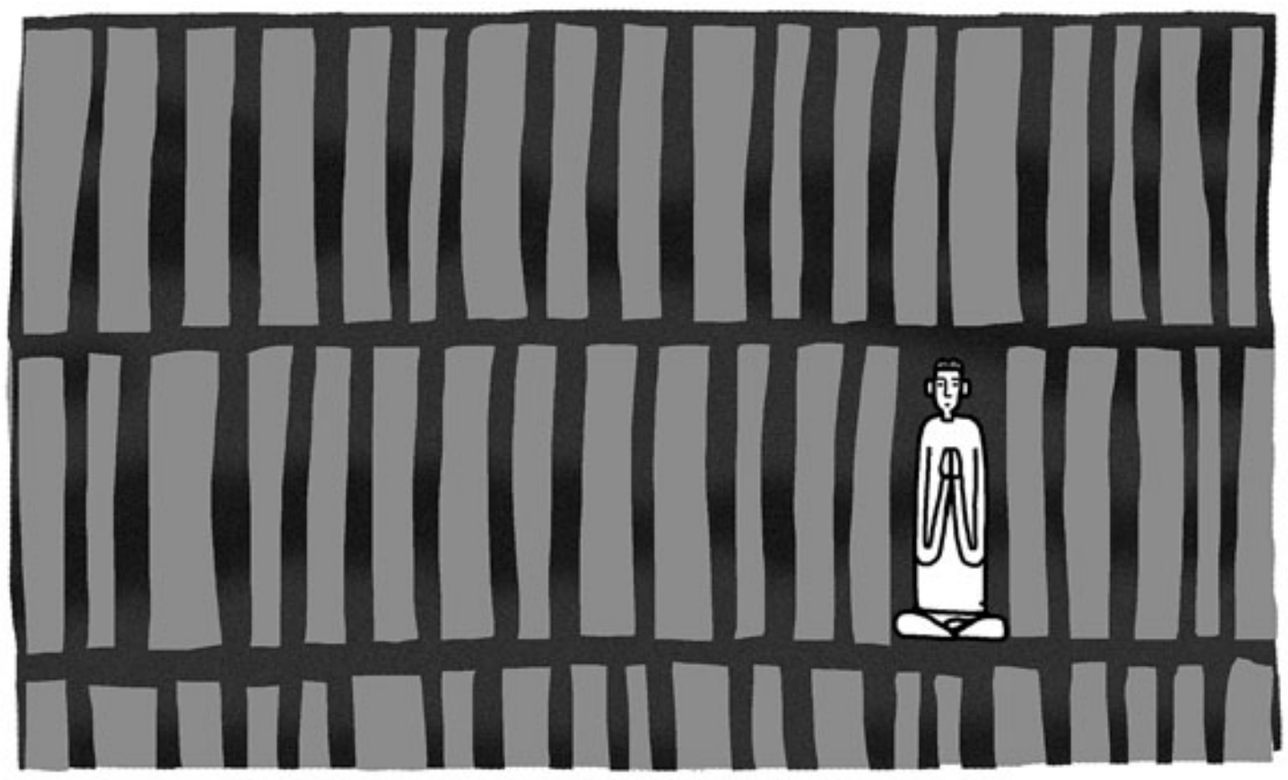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국난을 극복하는 마음 자세

질문 지금의 한반도는 위기 상황입니다. 매일같이 터져 나오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오천 년 역사 속에서 위기가 없었던 적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전쟁과 국난을 극복하면서 오천 년을 지켜 온 이 한반도가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유지해 나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마음을 내고 공부해 나가야 할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옛날에 팔만대장경을 만들 때도 몽고에서 쳐들어와서 어떠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마지막 손을 한데 모으고 빌었던 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입니다.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살고, 그때는 백성이라고 그랬지마는 지금은 국민이라고 그러죠. 살기에는 너무도 희박하고 너무나 처참하게 짓밟히는 까닭에 마지막 소원을 빈 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칼을 가지고 나무로 파서 부처님도 만들고 또 다른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질 만듭니다. 그런 거와 같이 그런 칼을 가지고 팔만대장경을 하나하나…. 그때 시절하고 지금 시절하고는 판히 다르죠. 그거를 쇠뭉치로 치고 마치로 쳐서 불에다 넣었다가 만들어서 그 하나하나 날카롭게 갈고 그렇게 해서 했던 거죠. 그 수많은 팔만대장경을 목각으로 했으니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지친데다가 24시간을 교대로 해 가면서 항상 그거를 파고 앉았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것도 잘 파지 못하고 참 어렵게 그것을 했던 거죠. 그럭하면서도 몽고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가두고 죽이고 또 그것을 옮기지도 못하게 했고, 너무나 치열한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래도 그 팔만대장경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없다고 하지만 팔만대장경을 할 때에 그 마음과 땀, 그 피가 거기에 한데 합쳐진 거지, 그게 그냥 팔만대장경이 아닙니다. 사람의 피와 땀이 한데 뭉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시쳇말로 한다면 팔만대장경이 전체 우주와 더불어 같이 한마음의 한 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조각 하나하나를 이고서 옮겼을 때에…, 지금은 발전이 돼서 그것을 간편하게 한꺼번에도 가지고 갈 수가 있죠. 또는 한꺼번에 가져가기 이전에 한 테이프에다 넣어서 한 손으로 들고 갈 수도 있게 발전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시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환경 속에서 그것을 하다가 사람이 죽으면 죽는 대로, 파다가 죽으면 갖다가 태우고 또 하다 죽으면 갖다가 태우고, 또 대리로 들어서고 대리로 들어서고, 아버지가 하다가 만약에 죽으면 아들이 대리로 들어서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세우고 백성을 살렸다는 얘깁니다.

그 정성이 얼마만큼 뼈저리게 내 나라와 내 국민을 생각했기에 그렇게 이루어졌겠습니까? 또 그렇게 이루어진 까닭도 역시 그러한 마음으로 지극하게 했기 때문에, 몽고 사람들이 말리고 죽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공중에서 천둥 벽력을 치면서 그 모든 것을 물리쳐 준 것입니다. 또 그 사람네들이 이고 가던 사람들의 눈을 빼는가 하면 창으로 그냥 배를 갈라서 오장육부를 다 빼서 나뭇가지에다 걸고 모가지를 베어서 걸고 이래도 굴치 않았다는 거. 굴하지 않고 이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 모든 것을 다 허쳐서 막아 줄 수 있었던 그런 아슬아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서 몽고 사람들이 굴복한 것도 바로 그런 데서 시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설법하죠? 그 모든 한 부처님의 그 마음이, 전체가 그냥 수만 개의 신장이 돼 가지고 앞에 그냥 전부 닥치니, 그 사람네들의 눈에는 전부 무서운 신장으로 가득 찼으니 뭐,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되니까 자기 혼자서들 모두 자빠지고 둥그러지고…. 그러니까 사람 손이 안 가도 자빠지고 둥그러지고 고함을 치고 이렇게 미치는 거야. 눈에 그냥 막 칼을 대고 덤비니까. 그렇게 해서 길을 비켰다는 얘깁니다. 그만큼 정성이 지극하고 그렇다면 안 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만 극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두 더불어 같이 극복하려면 내 몸속에 있는 생명들도 다 한데 합쳐야 되기 때문에 불성인 주인공에 '너만이 이 어려움을 면하게 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닥치는 것이 한두 가지라야죠. 그러니까 너무 골치 아프게 많으면 그냥 마음으로 딱 둥글려서 하나로 묶어서 거기다 그냥 내던져서 태우세요. 거기다 넣어서 태우고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요. 닥쳐오는 대로 말이에요. 그러면 국난 극복도 될 수 있겠고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보이지 않는 데 마음과 마음으로 다 퍼져요. 이건 자동적이에요. 퍼져서 퍼져서 퍼져서 이거는 다, 어느 나라에서 나쁜 일들을 많이 하고 그랬으면 그 나라에는 고난이 좀 더 올 거고, 또 거기서 잘하면 고난이 덜 오고, 더 오고 덜 오고 이렇게 연방 아주 질서 정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대로라는 얘기죠. 자기가 사는 대로고 자기가 하는 대로, 자기가 한 대로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쓰세요. 꿈을 잘못 꿨다고 '아이고, 이거는 어떡하면 좋은가.' 하지 마시고요. 꿈을 꿨더라도 '너와 내가 둘이 아닌데, 뭐. 둘이 아닌 까닭에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놓으세요. 내 마음이 영이라면, 체가 없다고 한다면, 영을 영에다가 수만 명을 갖다 집어넣어도 영이죠. 개수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해결을 다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 사람들의 해결도 다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왜냐? 그 마음이 영이니까. 체가 없는 거니까. 체가 없는 데 다 같이 들어가서 활란하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자기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반드시 자기를 지킵니다. 내버리니까 지켜요.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안 지켜지지 그냥 '너만이 지킬 수 있어!' 그러고 내버리니까 지키죠.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 '어, 네가 지키니까….' 하고 말죠. 옛날에요, 절에는 변소가 저 아래쪽에 멀리 있거든요. 근데 인제 밤에 스님이 변소를 가시다가 돌부리에 차여서 엎어졌거든요. 그래서 "얘!" 하고 호법신을 부른 거예요. "너, 왜 나를 이렇게 엎어지게 만들었느냐?" 하니까 "아이, 가시기 전에 좀 귀띔을 하시죠." 그러더라는 거죠. 넘어지기 전에 말이에요.

여러분도 벌써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든가 나한테 뭐가 닥친다든가 내가 일을 하는 게 뭐 어떻게 된다든가 뭐, 감이 오죠. 그러면 그 감 오는 대로 즉시 조치를 취해야죠. 여기서는 조치를 취하는 생각을 하고 또 실천을 하는 거는 그 안에서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살아 주지 않아요. 대신 해 주지 않고요. 부처님이 이 뜻과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진리와 더불어 가르쳐 주신 삶의 뜻을 정말이지 진짜로 생활에서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시면, 부모가 그렇게 진짜로 믿고 그렇게 잘 사니까 자식들도 아주 잘돼요. 그렇게 자기 길을 자기네들이 닦아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가 된다 함은 무슨 뜻인지

질문 일체가 주인공의 나툼이라면 모두가 주인공의 모습일진대 하나가 된다 함은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댁의 마음 내는 사람과 마음을 내고 움주거리는 사람이 둘입니까? 하나죠. 하나니깐 그 하나 속에서 자기를 발현해 내려고 앨 쓰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모두들 사는데 자기가 모습이 자기인 줄만 알고 또는 정신계의 보이지도 않고 쥘 수도 없고 가눌 수도 없는 그런 데는 생각질 않거든요. 그 보이지도 않고 쥘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데서 자기를 리드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와 나와 둘 아니게 이렇게 상봉한다면 서로 이렇게 뜻으로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죠.

☞ A18면으로 계속

지수화풍 지장보살

회향선원 주지 스님은 불사를 결심하고 도량에 어떤 부처님을 모실까 의증을 내던중 지장보살님이 현몽을 하셨다. 이후 스님께서는 1,000일 기도를 세번 마치니 다시 지장보살님께서 나투시어 "천일기도 3번이 끝나면 만불자에게 나를 내놓아라. 병고액난자가 내손을 잡고 기도를 하면 그 원을 들어주리라. 내가 지수화풍 지장보살 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

병고 액난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회향선원에 오셔서 지수화풍 지장보살님을 친견하시고 기도하시어 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회향선원 주지 혜명성일 합장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새재길 190번길 31-15(봉현리 산 44-1)

010-3771-7575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건조, 임플란트 틀니 하시고 잇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피부건조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인증 승려연수과정

수행에서 전법으로, 달라지는 승가교육

불교 가치를 담은 인성교육, 한나무인성교육 '꽃을 피우는 나무'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포교원 주최, '청소년마음등불사업' 참여 프로그램 메뉴얼로 연수 진행
참여 프로그램의 핵심 메뉴얼과 운영방법, 진행방식 등을 중심으로 연수과정 구성

■일 정 : 2017년 11월 9일(목) ~ 11일(토), 2박 3일(숙박형)
■장 소 : 한국문화연수원(충남 공주 소재)
■정 원 : 30명
■교 육 비 : 20만원, (재)한마음선원과학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마 감 : 2017년 11월 2일(목)
■문의/신청 : 031-470-3196, 3200 (매주 화~토요일, 오전10시~오후5시)

교육과정 확인 및 신청은 다음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저 나무가 자기 뿌리 믿고 살듯이 그냥 진실히 그렇게 해야

☞ A17면에서 계속

그래서 언젠가 내가 이런 말을 했죠. 길을 가는데 '이 길은 길이 아니니라.' 그래서 '어떤 게 길입니까?' 하니 아주 천야만야한 산중을 길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에 너무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깐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듣고 믿고 그걸 길이라고 한다고 갔습니다. 믿고 가질 않았으면 그것도 길이 아니라는 거를 몰랐죠. 그럴 텐데 갔기 때문에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길이 따로 없다는 걸 알았고 이 허공도 아닌 허공을, 즉 말하자면 속도가 빠르게 그, 다닐 수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그러니깐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고 행하는 내가 시자인 것입니다. 심부름꾼이에요. 그 자기 심부름꾼을 진짜로 공부 가르쳐서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꾸 비난을 하게 되죠. '아이그, 뭐 그까짓 것….'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되면 둘이 아니가 될 수가 없죠. 항상 둘이 되죠. 그러니깐 문제는 그런 데서는 '이 세상을 다 한데 합쳐도 하나로 구성된다. 하나로 돌아간다. 나 중엔 그 하나도 없다.' 이게 나오질 않죠.

그래 지금 모두 일들이 많이들 벌어지는 게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라고 그런다면 그냥 그냥 속세에서, 지금 물질세계에서 정신세계를 몰라라 하기 때문에, 같이 이어지질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지고 길을 제대로 걷게 되질 못하죠.

이 지금, 전 세계에 지진이 일어난다 하는 것도 그렇고, 모두 사람들이 곤경에 빠지고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다 해도, 이걸 병원에 가지 않는 게 옳으냐, 병원에 가는 게 옳으냐, 이거를 문제를 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병원에 안 가도 괜찮다 하고 병원에 안 가는 분들은 오직 그 주장자가 완벽하게 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지 않은 분들은 서지 않은 대로, 병원에 가고 병원에 안 가고 그걸 떠나서 진실히 저 나무가 자기 뿌리 믿고 살듯이 그냥 진실히 그렇게 해야만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둘 아닌 도리를 실천하려면

질문 물질세계는 번연히 나와 남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떻게 둘 아니게 실천해 나갈 수 있을는지요.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내가 산다는 생각 없이 무심으로 생활 속에서 진실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주고받고 삽니다. 더불어 살지 혼자 사는 사람 없어요. 옷도 더불어 같이 주고받고 입었고 먹는 것도 주고받고 먹고 모두가, 일체가 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둘 아니게 실천을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둘 아니라고 하느냐. 분명히 줬고 분명히 받았는데 어째 둘이 아니라고 하느냐 이러겠죠.

그런데 내가 전깃줄 얘기를 가끔 하죠. 전기, 전력이 들어왔을 때는 이게 불이 들어옵니다. 전력이 끊어졌다 이럴 때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면의 전깃줄을 갖다가 이렇게 이어야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렇듯이 이거를 주고받을 때, 이걸 주고 이걸 받을 때 이 한 순간은 같이 이 마음이, 즉 말하자면 정신계가 둘 아니게 이어진단 얘깁니다. 이어지니깐 찰나에 주고받은 예가 없단 얘기죠. 찰나에 주고받은 예가 없다. 그리고 함이 없이 살고 있다. 삶이 없이 살고 있다.

왜냐하면, 방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전에 말했듯이. 며슴을 산다면 자기네 집이 아니죠. 자기네 집이 아니니까 자기네 맘대로 할 수가 없죠, 며슴은. 주인이 맘대로 하죠.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이 주인이 이렇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내가 듣는데 듣는 순간, 주는 순간, 말을 하는 순간에 하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대신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깐 항상 그 한 찰나 찰나마다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이 없이 하게 된단 얘기죠. 그래서 자기 속에서 한생각이 나서 '이걸 해야겠다' 이러고 하는데도 함이 없이 하게 되고요, 남이 주는 거를 받았다 하더라도 받은 사이가 없고 그 상대방도 준 사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모두 가셔야 될 겁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데 '이게 둘이 아니다' 라는 실천을 해야 할 텐데 둘이 아니라는 것을 말로만 알고 있지 실천을 할 수가 없단 얘기죠. '항상 둘이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이게 어째서 둘이 아닌가. 저쪽에서 나를 줬고 내가 저쪽에서 받았는데 어떻게 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한순간 전깃줄에 닿는 거와 같단 얘기죠. 이 마음이라는 건 그렇게 빨라요, 속도가.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속도가 빨라서 한생각에 그냥 그저 갖다 놓고 '고맙다, 고맙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고 하나로 그냥 이어지기 때문에 고맙단 말 없이 그냥 고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시게 되면 말을 하시고 그냥 가셔도 되는데 꼭 말을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뒷말을. 뒷말을 들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님네들도 '자기 몸은 시자로 쓰고 자기 정신은 부처로 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항상 스스로서 '둘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실천을 하시는 데에 그게 묘미가 있다. 어떻게 그러면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느냐. 생각을 하지 않아도 본래 잠재해 있다면 그냥 해도 그게 둘 아닌 줄 알게 되는 거죠. 모르고 우리가 그냥 주고받고 이렇게 해도 그게 둘 아니게 그냥 실천이 됐다는 얘기죠.

모두 내 몸뚱이 네 몸뚱이를 가지고 이렇게 둘 아니게 실천이 되게끔 된다면 일일이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뿌리가 뭐, 떨어졌다가 붙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항상 자기 뿌리는 자기 뿌리가 가지고 있죠. 자기가 있는 데에 자기 뿌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이 나를 줘도 상대방 그 사람도 자기 뿌리를 가지고 있고요, 나도 내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그 뿌리와 뿌리가 한데 합쳐져 버려요. 합치게 돼 있어요. 이 텔레비전을 끄면 안 나오죠. 켜면 나오죠. 그렇게 자유자재해라 이 소립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벌써 둘이 아니게끔 된다 이 소리죠.

처음에는 서툴지만 그게 둘이 아니가 되기 때문에 서툴러도 하다 보면은 물리가 터지게 되고 자꾸자꾸 늘어나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생각 자체 하는 것도 요이하게 되고 생각하는 것도 유유하게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생각이 들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악한 거나 선한 거나 둘로 보지 마라." 이랬죠. 그거는 이 모두를 합류화시키는 데 있는 겁니다. "이 몸뚱이도 나 하나로만 보지 마라. 수천, 수천 개가 이 몸속에 살아 있다.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자 내 생명들이다. 그러니깐 너 하나만의 모습을 보고선 너라고 그러지 마라." 이랬죠.

그런데 이게 말로는 할 수가 없는 말이죠. 둘 아닌 도리를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 하는 그 얘기는 내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마음 놓고 생각 없이 그냥 "아, 이것 좀 먹어 보오." 이러고 줬는데, 그냥 줬는데도 그냥 둘 아닌 줄 알아라 이거죠. 그걸 생각을 일일이 해서가 아니라. 둘 아닌 줄 알고 이렇게 줬어도 그렇고 받았어도 둘 아닌 줄 알게 되면은 이 받은 것이 저절로 일로, 이 대가가 일로 가요. 가는 줄 모르게 가고 오는 줄 모르게 온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다 줘야만 하는지요

질문 저는 소도시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불자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이면 서너 번 구걸을 하러 오는 분들을 맞게 됩니다. 불자이기에, 더욱이 내가 없는 공부를 하기에 그때마다 고민이 됩니다. 제가 그래도 여건이 될 때마다 형편 되는 대로 드리는 편인데 주위에서는 오히려 저의 섣부른 동정이 그 사람들을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충고를 듣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나와 남이 함께 벗어날 수 있을는지요.

답변 여러분은 고귀한 생명과 삶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마음을 착잡하게 또는 어둡게 두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입니다. 모습만 바꿀 뿐이지, 우리의 이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남한테 얻으러 다니지 않고, 영원히 담 밑에 돌아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남한테 짓밟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올바로 진실하게, 남에게 주더라도 무주상보시로 주어야, 내가 상(相)을 두지 않고 주어야 상을 두지 않는 그 물건이 바로 나한테 다 있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것도 한 통장에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기서 설법을 한 서너 번 들었답니다. 근데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맏이로서 동생 일곱을 다 키웠답니다. 밥장사를 하고 물장사를 해서 키웠답니다. 그랬는데 키워 놓은 동생들은 언니가 동생들을 공부시키느라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공부도 못 하고 자기네들을 공부시킨 걸 모르고, 그 나오는 것이 핏방울인 줄 모르고 아무렇게나 자기들은 구경 다닐 것 다 다니고 없으면 손 벌렸답니다.

그래서 동생들은 부모만 그리웠지 자기처럼 고생하지 않으면서 잘 공부해서 맞이 맞이 만나서 잘 사는데도 조금만 부족하면 와서 막 압박을 하고, 언니는 그렇게 벌어서 쓰면서 왜 주지 않느냐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올바로 그 뜻을 알고 나간다면 줬을 텐데, 그럼 좋겠는데….' 하고 아주 괴로워했답니다. 그랬는데 내 설법을 듣고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얘, 쟤가 쓰는 것이 바로 부처가 쓰는 거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저 애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내가 쓰는 거니까 그냥 내가 써 보자.' 하고서 자기도 없는 걸, 장사를 하기 때문에 빚을 져 가면서 사는데도 '에라, 이것도 시주다.' 하고선 집어 줬더랍니다. 주니까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더랍니다.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다 보니까 그저 조그마한 거라도 또 뭐가 팔려서 그걸 메워 나갔답니다.

그랬다고 하면서 "너무도 고맙습니다. 내 마음을 이렇게 넓게, 부드럽게 사랑할 수 있고 둘로 보지 않게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날까지 그 불쌍한 동생들을 키워 왔건만 오늘날에 보니까 내 동생이 언제 적의 내 동생도 아니고 내 동생 아닌 것도 아니고 모두가, 남들이 남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쓸 때 쓰는 것이지 그렇게도 내가 안 써야만 하겠다고 할 필요도 없고, 그 애 잘못된 거를 아니, 내가 타이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건만 왜 그렇게 내 속을 썩여 가면서 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제 쌈 안 하렵니다." 그러면서 고마워하더군요. 그러니 여러분이 남에게 주어서 쓰는 것도 자기가 쓰는 겁니다.

그러나 공자, 노자가 말씀하셨듯이 "얻으러 온 사람도 주지 않을 사람은 주지 않아야 되느니라." 했습니다. 그건 나도 똑같이 말합니다. 왜 그러냐? 그 뜻을 모르고, 고마운 줄을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 앞에는, 남한테 기대기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천만 냥을 보태 주어도 그건 온 데 간 데가 없고, 오히려 반성하는 기간이 늦어져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지 않는 것도 덕이 되고 공덕이 되고, 주는 것도 공덕이 되고 이러는데, 모든 게 공덕이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한 점의 마음, 여기 바로 중심에 부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일체 우리가, 만법의 만 부처가, 그리고 만 생활이 다 이 한 점의 마음에 들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나고 들고 하는 것이 이 한 점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렇게 살펴서, 오관을 살펴서 오관으로써 모든 걸 해 나가는데 정밀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건 내 한 점의 마음을 알아야 그렇게 정밀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거지만,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올바로 진실을 안다면 그게 바로 깨달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진실치 못하고 거짓으로만 나가고 또 나의 어떠한 이름만 가지고서 위대한 어떤 직위만 탐을 낸다면 그것은 바로 나 자체를 모르고 이름만 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상(假想)스러운 인생살이는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나부터 진실하고 나부터 알아야 모든 살림살이가 아마 적당하고 소소영영하게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 이 마음이 자기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 반드시 자기를 지킵니다. 내버리니까 지켜요.
>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안 지켜지지, 그냥 내버리니까 지키죠.

